

통권 제 247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5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24
구경의 법




살다보면
뒤늦은 반성문



십선성취
도덕적 사고와
통제적 사고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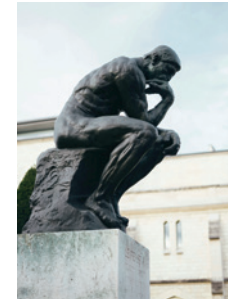
 불교충지중

고^苦와 낙^樂

나무는 비와 바람으로서 성장하나니
 비와 바람이 비록 싫다 하겠으나 그로써 자라는 것이며,
 사람은 고난하여 성공하나니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을 겪는 중에 인격이 완성하느니라.



지혜의 뜨락 _ 42
 우리 가정은
 안녕한가 _ 방귀희



고전산책 _ 54
 고로 나는 존재한다
 _ 신로사



동행 _ 60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습니다 _ 탁상달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10 불교 이야기	부처님이 오신 까닭 - 법상인 전수
16 마음챙김 메커니즘	감정 ^{感情} ②_감정의 속성 - 임진수
21 지장스님의 향유	여섯 도둑, 여섯 스승 - 지장 스님
24 살다보면	뒤늦은 반성문 - 이옥경
30 경전에서 찾은 지혜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 - 불교총지중 법장원
32 문화재 해설	경주 남산 장차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 위드다르마 편집실
36 절기 이야기	소만 ^{小滿} - 위드다르마 편집실
38 마음의 등불	노년의 웰빙(well-being) - 법상 정사
40 산책	오월 - 김대곤
42 지혜의 뜨락	우리 가정은 안녕한가 - 방귀희
45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	본연의 자비 ^{慈悲} - 하현주
50 십선성취	도덕적 사고와 통제적 사고 - 남혜 정사
54 고전산책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신로사
57 마지막 공부	어떠세요? - 유소림
60 동행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습니다 - 탁상달
64 우리절노래꽃	잠 못 드는 사람에게 - 묘원화 전수
66 서원당 안의 불교	밀교와 현교의 다른점 - 혜광 정사
68 나만의 빛, 모두의 빛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72 금쪽상담소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미술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초등학생 아들이
일찍 퇴근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오비이락’이 뭐예요?”

“왜?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데?”

“미술학원에서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사자성어로 그게 ‘오비이락(鳥飛梨落)’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아들 어떻게 그렸니?”

“까마귀와 바다 위의 배를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두드리며) 이 배를 그렸어요.”

전 아들의 그림에 한참 웃고 난 뒤

아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은 난감하고 속상한 표정을 짓더니

미술학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시

그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다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기발한 생각이라며 칭찬해 주셨답니다.

전 아들이 무안하지 않게 격려해 주고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칭찬해 준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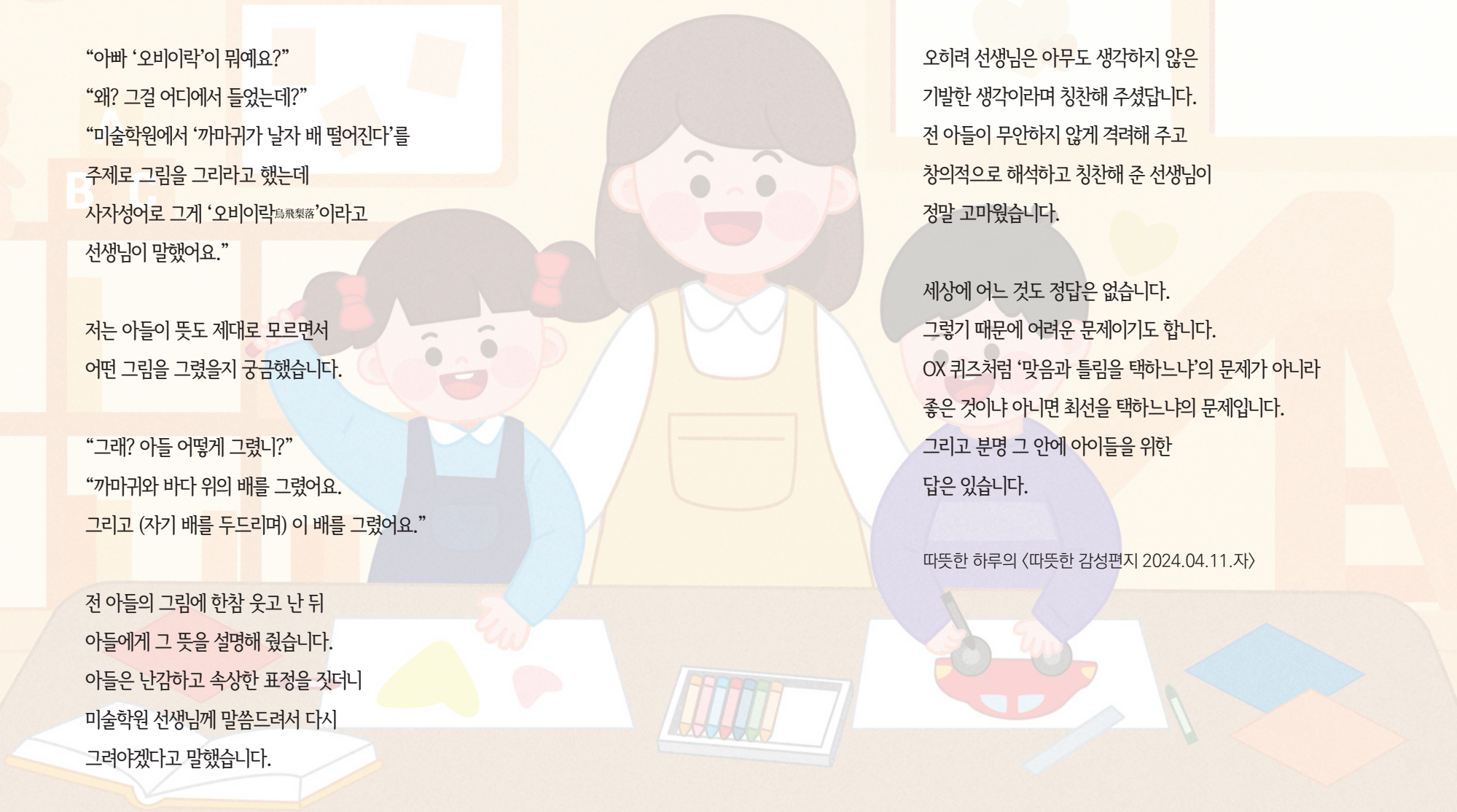
세상에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OX 퀴즈처럼 ‘맞음과 틀림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선을 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안에 아이들을 위한
답은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04.11.자>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흥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思想)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6화-창종VI

새로 만드는 길이니 때로 잡음과 불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상을 드러내 남 앞에 서려 하여 자신과 남 모두를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분란이 있을 때마다 대성사의 대응은 한결같았다. 꾸짖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진실이 자연히 드러나도록 불공으로 이끌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결같은 답을 주셨다.

“법계에 물어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불공하면 반드시 감응이 있을 터이니 그에 따라 행하라.”

실제로 대성사로부터 불공법을 배워 행한 후 원하는 바를 이



루는 일이 일어나면서 소문을 듣고 영험을 얻으려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밀교 수행에는 신통이 따르는 일도 있으나 대성사는 그 또한 경계하라고 일렀다.

“수행하여 도를 닦는 일은 즉신성불을 목적으로 일체 애욕을 탐하는 마음과 원함과 원망을 끊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또한 신통으로 세상사를 희롱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한 “신통력과 주문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오직 자신의 삼밀수행으로 부처님의 가치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통을 얻는 것이 밀교 수행의 목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법계는 진실하니 시비는 반드시 가려지고, 설혹 그 시간이 길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인간의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지 말 것을 일깨웠다.

대전과 대구에 선교부가 차례로 문을 열고 곧이어 총지종 총본산의 불단을 세우는 불사가 진행된다. 1973년 3월 26일 서울 종암동 123번지 26호의 3층 건물과 대지를 사들이고 총지종의 많은 스승과 교도들이 모여 불단 이설 불사를 거행했다. 서울선교부로 시작했으나 성북선교부로 간판을 고쳐 달았고, 대성사는 이곳에 머물면서 당면한 일들을 처리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종단 불사인 중요 경전을 번역했다. 성북선교부는 정통 밀교를 복원하는 법계의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었다.

당시 대성사의 일과는 시곱바늘처럼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았다. 건물은 본디 인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하숙집으로 쓰던 곳이라 이리저리 방을 들여 좁고 불규칙한 꼴이었다.

대성사가 머문 곳은 대략 한두 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다. 방 안엔 다른 치장 없이 오직 경을 보는 데 필요한 작은 경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필사해 온 밀교 경전들을 살



펴 읽고 번역하는 작업으로 하루의 절반가량을 보냈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경을 덮어 일과를 지켰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복을 차려입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우선 평생 함께하던 라디오를 켜고 세상 사정을 들었다. 라디오는 닳고 닳았지만 새로 바꾸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썼다. 정확한 시간에 시보를 알리고 세상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다.

자신이 정한 불공과 기도에 어긋남이 없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맞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정에 맞는 수행법과

불공을 가르쳤다. 대성사는 스스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 예정된 일을 했다. 정해진 일은 결코 미루거나 행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씀 하나가 온 법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밀교행자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법을 설할 때면 일체 사사로운 이야기를 섞는 바 없이 오직 경에 나오는 가르침만을 전했다. 경에 근거하지 않는 법은 입에 담지 않았고, 의례를 정하거나 불단을 세울 때도 경전을 찾아 부처님 교설에 의하여 행했다.

대성사의 경전 탐구는 멀리 일제강점기 하얼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패망을 미리 예견하고 전쟁의 참화를 목격한 바 불교에 마음을 두고 경을 찾고 불교 서적을 탐독했었다. 이때 심은 보리의 씨앗은 후에 불교총전과 밀교장경을 만들 때 고스란히 담겨 총지종의 보배가 되었다.

특히 비밀의례는 의식이 주가 되는 밀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현대 한국밀교의 위대한 성과이다. 그 의례 하나하나를 교리와 경전 가르침에 맞춰서 정하였다.

의식은 사원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여법

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결식과 기제식에 필요한 용구로 왕생막과 법등을 제작했다. 왕생다라니도 고안하여 생활 속에 밀교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역경 불사는 교도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현밀 양교의 경전을 골라 엮은 ‘불교총전’부터 시작했다. 대장경 속에서 중요한 내용과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골라내 직접 우리말로 옮겼다. 1964년 출범한 동국역경원이 당대 최고의 학승과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고려대 장경의 한글 번역을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대성사 혼자 힘으로 대장경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하고 당시 이름조차 생소한 밀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천부적인 언어감각을 타고난 데다 일본어, 만주어, 중국어, 한문, 영어, 러시아어까지 섭렵한 터라 번역은 유려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옮겨졌다. 당시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불교 문헌이 많지 않아, 스승들은 그 자료를 포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인물의 형태로 보급되어 차곡차곡 성과가 쌓였다. 초창기의 ‘불교총전’이 그렇게 탄생했다.

우리가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안에서 만나는 부처님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선택받은 존재처럼, 때로는 신의 아들이라도 되는 듯, 초인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처라는 이 단어는 붓다Buddha에서 유래하였는데,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우리 식의 발음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었고, 이 깨달음으로 인해 붓다, 즉 부처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다음의 45년간이 부처로서 활동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45년간 쉬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데 애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라는 것도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의 경향을 보면 종교를 전

혀 지니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들어오기보다는, 기성 종교에 이미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불교로 전향한 경우가 많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불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늘 1,200명 정도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천민부터 고위직 대신과 왕족에 이르기까지 출신계급의 폭이 넓고 다양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신분의 제약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실제로도 귀의 후에는 부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분이나 직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등 없이 서로를 대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우바리’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뛰어난 10명을 뽑아 10대 제자라고 일컬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이 ‘우바리’였습니다. ‘우바리’의 직업은 이발사였는데, 그때의 이발사는 천한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바리’보다 더 늦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난 일곱명의 출신 계급은 왕자였는데, 언제나 ‘우바리’가 일곱왕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먼저 받은 이가 ‘우바리’였던 까닭입니다. 이는, 신분에 따라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태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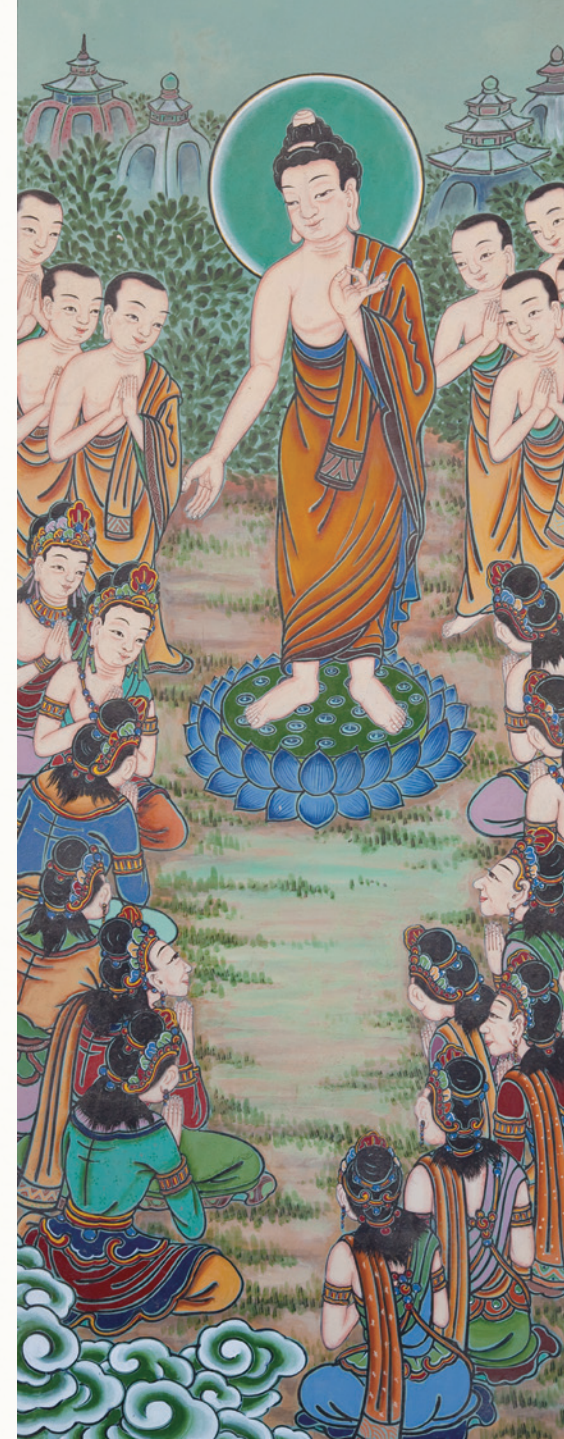
때부터 혈통으로 인해 무언가가 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신분으로 인한 벽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마음이나 행동으로 인해 신분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양반의 행동은 양반을 만들고, 천민의 행동은 천민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러한 신념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인도 모습은 어떤가요? 부처님의 바람대로 되었나요? 여전히 엄격한 계급사회로 이루어져있고, 그로 인한 차별과 폭력 이 만연한 인도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인도 헌법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실제의 사회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의 귀천도 엄연히 존재하고 출신 환경에 따라 균등한 기회 분배에도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도달 가능한 도착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좌절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재가 불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출가하지 않았다면,

세속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결코 자기 이익만을 도모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처님 자신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여력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는 위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염려하고, 일생을 교화에 전념하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80세에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드셨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통 누군가 세상을 떴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열반과 죽음에는 그다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많은 번뇌를 가지고 있고, 이 번뇌들은 제각각 저마다의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리석음의 작용, 욕망의 작용, 분노의 작용, 질투의 작용 등입니다. 이와 같은 번뇌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불교인들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상향은 바로 '번뇌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종교인이라고 한들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의미 안에서 활동을 줄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늘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 하는 의식주(衣食住)는 번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한들, 깨끗한 마음만 남아있다고 한들 번뇌까지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없어진다는 것은,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기 전에는 욕망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때문에 죽음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불교의 최종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해탈'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광범위한 지식보다는 깨달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르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선계, 비뚤고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악계라고 하는데,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육체는 선계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정신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행동을 바르게 해야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마음을 통일하는 정신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전념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바야흐로 지혜는 깨달음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함께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감정^{感情} ②_감정의 속성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감정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감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감정의 크기도 다른데, 이런 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틀어짐이 발생하며 수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한다. 또한 이런 차이는 자기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

좀 더 살펴보면, 좋은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과는 달리 어렸을 때 학대를 받는 것과 같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지점이 왜곡되어 제대로 된 감정을 갖질 못한다. 이렇게 왜곡된 감정은 왜곡된 행위를 유발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 당연히 싫어야 할 감정을 좋아하기도 하고 당연히 좋아야 할 감정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마다 감정의 역치(閾値: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자극의 세기)는 다르고,

감정의 왜곡은 욕구의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정체되지 못한 욕구, 욕망은 왜곡된 감정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두 번째, 감정은 제 생각이나 의지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의지 이전의 마음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을 멈출 수 없고, 분노가 멈췄을 때 분노했던 자신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으로 감정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감정을 생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감정의 사용은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수의 경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자신의 감성에너지를 외부로 분출시켜야 하고 그 에너지가 대중들에게 공명을 일으켰을 때 청중은 감동한다. 그저 음률과 음정을 맞춘다고 해서 청중들이 감동하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



신의 에너지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 그 말은 감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가수들의 전성기가 대부분 에너지가 많은 젊은 시절인 이유이다. 그래서 개중에는 나이를 먹어서 잘 일어나지 않는 감성을 억지로 짜내려다가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며, 그래서 결국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지해서 감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결국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감정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왜 영원하지 않은지 고민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감정의 속성은 이런 것이고, 만약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수많은 감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 사랑할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사자들의 사랑만이 지고지순하며 영원할 것 같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소수의 현명한 사람만이 육체적이면서 감정적인 사랑을 정신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랑으로 대체해 나간다. 대부분은 서로의 육체와 감정에 매달리다가, 육체의 매력이 사라져서 감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사랑도 같이 끝난다.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워하면서 고집으로 관계만 유지해 나가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럼 이렇게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쉽게 조절할 수도 없으며, 영원하지도 않은 이런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욕망에 기반하여 나타난다. 자신의 욕망에 맞으면 좋다고 느끼고, 욕망에 맞지 않으면 싫다고 느끼며, 욕망에 걸리지 않으면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느낀다. 이 세 가지 감정의 수용방식 즉, 좋음, 싫음, 좋지도 싫지도 않음은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감정의 좋음은 생각의 옳음으로, 감정의 싫음은 생각의 그름으로, 감정의 좋지도 싫지도 않음은 생각의 옳지도 그르지도 않음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지극히 주관적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 주관적 감각과 더불어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주관적인 생각들은 ‘자아_{自我}’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는 다시 좋음과 싫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 애증_{愛憎}에 의해서 사람들은 집착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애증은 인간사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애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명상의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감정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행복은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감정이란 즐거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즐거움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괴로움은 빨리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유지하거나 없애려는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쁠 때 기뻐해야 하고, 분노할 때 분노해야 하며, 슬플 때 슬퍼해야 하며, 즐거울 때 즐거워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쁨에 빠져, 분노에 빠져, 슬픔에 빠져,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단지 느낄 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 자신이 감정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야 한다.’ 이 말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에 휩싸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낼 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감정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윤희유 같은 존재이다. 감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감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서유기라는 소설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현장 법사가 손오공孫悟空과 함께 불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국으로 가다가 여섯 명의 도둑을 만나게 됩니다. 현장 법사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고, 손오공이 여섯 도둑들과 맞서게 됩니다.

도둑들은 손오공을 위협하며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손오공이 그들의 말을 비웃으며 못준다고 하자, 도둑들은 손오공의 머리를 칼과 도끼로 내리칩니다. 손오공의 머리에는 상처하나 생기지 않았습니. 도둑들이 제풀에 지치자 이번에는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도둑들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둑들은 순식간에 죽어 나뒹굽니다. 도둑들을 해치운 뒤 부듯하게 손오공은 현장법사를 불렀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현장법사는 죽어있는 여섯 명의 도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인데 어찌해서 사람을 죽였느냐고 손오공을 꾸짖게 되지요. 현장법사의 꾸짖음에 어이없어하던 손오공은 겁이 나서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탄소리냐고 현장법사에게 대답니다. 이때 현장법사는 손오

공의 머리를 조이는 주문을 외어 결국 손오공의 참회를 받아냅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 후 손오공을 위해 법문을 해줍니다.

여섯 도둑을 잘 제도하면 여섯 명의 훌륭한 도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면서 내 안에도 여섯 도둑이 있으니 잘 다스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섯 도둑은 우리의 마음을 외부 대상에 홀리게 만드는 여섯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이 감각기관들은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하고 있는 외부 정보에 대해 왜곡된 가치를 부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습관적 마음작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감각기관의 작용을 잘 알아차리고 감시하여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가 덜 일어나게끔 노력하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면 수행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붓다는 여러 경전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감각기관에서 일체 세상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일체 세상이 소멸한다.

여섯 감각기관에서 일체 번뇌가 발생하고

그곳에서 일체 번뇌가 소멸한다.’



괴로움이 시작되는 곳도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곳도 바로 여섯 감각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면 여섯 신통력을 만들 수 있고 여섯 가지 인식을 돌이키면 육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섯 손님들을 늘 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문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손님들에게 흘러 빠지게 되면 도둑이 될 것이고, 그 손님들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나를 알게 해주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손님 접대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늦은 반성문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1년에 두 번, 설 하루 전 날과 어버이날 아침이면 나 혼자 조출한 상을 차려 친정 부모님께 차례를 올린다. 선달그믐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 시작해 20여 년이 지나도록 가족들도 모르게 차례를 올리는 건 엄마의 생신인 그날 하루만큼은 엄마의 날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다. 살아계신다면 아흔둘, 그러나 '여자'인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자식들이 결혼을 해 일가를 이루었어도 엄마의 생신은 설 명절에 묻혀 유아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절대빈곤의 시대를 거쳐 가난한 집안의 만머느리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던 엄마에게 그날은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이 간절할 만큼, 대식구를 먹일 설 명절 준비로 속을 태워야 하는 날일뿐이었다. 설날이면 스무 명도 넘는 일가친척들이 들끓었지만 아무도 엄마의 생신을 기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의 딱한 입장을 감싸고 위로하는 게 지당한 아버지도 먼산바라기 일쑤였으니. 그뿐인가. 이리 쪼개고 저리 맞춰가며 차례상 구색 맞추고 이를 사흘씩 일가친척 먹이느라 동동거린 엄마에게 돌아오는 건 인색

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지청구 일색이었다. 그 흔한 고등어 한 마리 들고 오지 않았으면서도 돌아갈 때는 양손이 무거워야 하는 손아래 동서들이 물어 나르는 말 때문에 시어머니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울었다. 커다란 이남박에 쌀을 씻으면서, 만두소로 쓸 묵은 김치를 다지면서, 시린 손불어가며 찬물에 콩나물을 씻어 건지면서.

지난했던 엄마의 인생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치르는 의식 같은 것으로. 차례상에 절하고 가만히 마주 앉아 있으면 엄마가 환한 미소로 따뜻한 품을 내어 주시는 것 같아서 늘 발걸음도 가볍게 장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잡채며 약식에 오징어 숙회까지, 큰돈이 들지도 않았지만 돈이 아깝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설 대목이라 비싸려니 하면서 집어 들었던 쪽파 한 단이 3천 5백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이란다.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질 않아 쪽파를 놓고 돌아서는데 무언가가 쿵 가슴을 쳤다. 밀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오른 것이다. 장터를 몇 바퀴씩이나 돌고 또 돌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값을 묻고 좋은 물건을 고르던 엄마의 모습이 말이다.

가난했던 엄마에게 만두소에 넣을 돼지고기와 당면과 두부는

얼마나 큰 무게였을까. 자식들에게 설빔 양말 한 켤레씩도 장만해 주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애잔하고, 줄줄이 앞드려 절하는 조카들에게 세뱃돈 제대로 쥐어 주지 못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때 엄마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그때 엄마가 느꼈을 참담한 심정이 한순간에 확 다가오는 바람에 그만 눈물 폭지가 풀려버린 모양이다. 예상치도 못하게 시작된 눈물은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차례를 지내고 엄마와 마주 앉은 순간에도 툭하면 터져 나와 마음을 적시곤 했다.

이심전심이랄까. 설날 아침에 문안전화를 한 큰올케가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 이야기를 했다. 나이를 먹고, 아들을 결혼시켜 함께 명절을 쇠다 보니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애면글면했던 어머니(우리 엄마)의 마음이,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애뜻함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더라. 큰올케의 마음이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다. 그런 올케의 마음이 단지 우리 엄마만을 향한 것이겠는가. 올케 역시 돌아가신 친정엄마에 대한 회한이 깊어진 것이라니. 이렇게 뒤늦게, 되돌릴 길도 없는 먼 길을 걸어와서야 어렴풋이나마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게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 눈물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5월 8일 어버이날 올리는 차례는 엄마의 생신차례에 아버지



의 밥을 한 그릇 더 떠놓는 것과 달리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이 모두 주인공이다. 차례라고는 하지만 상차림은 두 번 다 간소하고 격식에도 맞지 않는다. 나이 드니 깔깔한 잡곡밥이 싫어진 다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얀 쌀밥을 녹신하게 짓고 엄마가 좋아하던 황태 미역국도 보양게 끓여 낸다. 여기에 불고기와 나물 두어 가지, 임연수어 한 마리 구워 올리면 그만이다. 애주가였던 아버지를 위해 소주 한 잔, 취중진담을 권하며 엄마에게도 한 잔, 고아(!)가 된 지 20여 년이 넘은 이 딸내미도 그리움에 한 잔... 절을 올리고, 아버지와 엄마의 빈자리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50년도 채 되지 않았던 부모님과 짧은 인연에 마음이 아리다.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고 되돌려 드리지 못한 것이 더 많아서 죄송해지는 시간이지만, 지금도 먼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과 만날 수 있으니 그런 수고쯤은 오히려 행복이다.

깨달음은 참 늦게 온다. 부모님을 위한 일입네 하면서 정작 부모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마저 가득했다. 자식에게조차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픔이 있다는 걸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 고단함을, 그런 힘겨움을, 그런 외로움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랜 투병 중에도 맑은 정신이 들 때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하시던 엄마의 눈물이, “네가 있어서..., 그곳이 어디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 잘 살아야 된다.” 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아직도 생생하건만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없는 사랑의 다른 말이었음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이리도 빠져린 회한이 될 줄을, 이리도 절절한 그리움으로 남게 될 줄을.

이제 더는 두 분을 위해 해 드릴 게 없다. 엄마의 생신과 어버이날 차례를 지내는 건 『부모은중경』이 전하는 말씀처럼 “나를 낳아 고생하며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나만의 의식일 뿐, 엄마의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할 수도 없다. 어찌면 그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리움에 대한 자기 위안이자 때늦은 속죄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랑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풍수지탄風樹之嘆이지만 부모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길 뿐이다. 다시 만나는 그날, 죄송한 마음으로 큰절 한번 올리면 두 눈 가득 눈물을 담고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겠지. 애썼다고, 고맙다고. 그게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기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일 테니까.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

불교총지종 범장원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키고, 은혜를 갚는 자는 또한 마땅히 일체중생을 가르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대방편불보은경, 大方便佛報恩經』

옛날에 앵무새 한 마리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속에는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이 서로 사랑하고 해치지 않으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앵무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먼저 살았던 그 산에 불이 나서 사방이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를 본 앵무새가 큰불을 끄려고 물에 들어가 날개로 물을 적셔서 날아가 공중에서 물을 털어 떨어뜨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오고갔습니다.

이때에 천신^{天神}들이 물었습니다.

“슬프다. 앵무새야, 네 어찌 그렇게 어리석으냐?
천리나 되는 불을 어떻게 두 날개의 물로 끌 수 있겠느냐?”

앵무새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산속에 살 때 사귀 모든 짐승들이 다 어질고 착해서 형제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을 보니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불을 끄겠습니다.”

천신들은 이 은혜 갚는 지극한 뜻에 감동하여, 큰비를 내려 곧 불을 꺼주었습니다.

『구잡비유경, 舊雜譬喻經』 불교총전 발췌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위드다르마 편집실

‘아기 부처’라 불린 신라의 불상

경주 남산에 가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다양한 불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산에 본격적으로 불상이 조성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입니다. 이 중에서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이른 시기인 삼국시대에 조성된 불상입니다.



1924년 남산 북쪽, 장창곡 인근에 있는 석실^{石室}에서 불상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상 양쪽에 나란히 있었던 두 보살상은 이미 산 아래 민가로 옮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불상과 두 보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불교조각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불상에 담긴 이야기

장창곡 삼존불상은 <삼국유사> 「생의사석미륵^{生義寺石彌勒}」에 등장하는 생의사 미륵세존으로 추정됩니다. 644년(선덕여왕 13) 생의 스님이 꿈속에 찾아온 미륵을 남산 골짜기 땅속에서 찾은 뒤, 삼화령 위에 석조미륵상을 봉안하고 그 자리에 생의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륵불상은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에서 충담 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공양했던 남산 삼화령 미륵삼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장창곡 삼존불상은 이 미륵불상과 존격^{尊格}이 동일하고 조성시기도 비슷해 같은 불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장창곡 삼존불상을 ‘삼화령 미륵불상’이라고도 하며, 조성

시기를 64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렇듯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불상의 조성 시기와 발원자, 처음 봉안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라 불교 조각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미륵부처

장창곡 불상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의좌상^{倚坐像}’이라는 점입니다. 불상 뒷면에는 의자를 표현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6~7세기 중국 의좌상이 대부분 미륵불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국유사>에 ‘삼화령 미륵세존’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불상 역시 ‘의자에 앉아 있는 미륵부처’로 여겨집니다.

7세기 신라를 대표하는 불상

장창곡 불상은 연꽃잎이 새겨진 타원형 대좌^{臺座} 위에 두 발을 나란히 내려뜨리고 앉아 있습니다. 왼손은 법의^{法衣} 자락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살짝 구부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신체 비례와 어린이 같은 모습, 천진난만한 표정, 단순한 옷주름 등은 7세기 신라

불상의 특징입니다. 불상의 머리 뒤에는 원형 광배^{光背}를 표현했고, 광배에는 연꽃무늬를 조각했습니다.

장창곡 불상 양옆의 보살상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모습 덕분에 ‘아기 부처’로도 불립니다. 두 보살상은 손의 위치나 장식이 다를 뿐 조각 수법은 거의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얼굴과 신체 비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삼면관^{三面冠}을 쓰고, 어깨에는 천의^{天衣}를 걸쳤으며, 목걸이로 가슴을 장식했고, 손에는 줄기가 달린 연꽃을 잡고 있습니다. 보살상의 대좌는 발견했을 때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1975년에 본존불 대좌를 본떠 새로 만들었습니다.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의 많은 불교 유적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작품입니다. 석실에 모셔졌고,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의자에 앉은 미륵불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당대 7세기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신라 특유의 부드러운 조형미를 표현하여 신라 조각의 대표작이라 할 만합니다. 이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박물관에서 신라 승려들의 기원이 담긴 삼존불상을 감상하면서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만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5월 21일 무렵이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벼농사를 주로 짓던 우리 조상들은 소만을 모내기 시작의 기준으로 삼았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서는 부엉이가 울었다. 한편 이 무렵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힘겹게 연명하던 시기이다.

소만에는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소만 바람에 설늪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초여름인 5월에 설늪은이가 얼어 죽는다니, 황당한 속담이 아닐 수 없다. 허나 이 시기 아침에는 꽤 찬바람이 불어온다. 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면서 동이 트는 새벽에는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또한 '사월에는 소밭자국에 물만 괴어도 막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음력 4월은 비가 적고 식물의 생장은 왕성하여, 곳곳에 일손을 기다리는 농사 가운데 물 가두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소만 무렵에 행했던 풍속으로는 봉선화 물들이기가 있다. 봉선화가 피면 꽃과 잎사귀를 섞어서 짙은 다음 백반과 소금을 넣어 손톱에 얹고, 호박잎이나 피마자 잎, 형겔이나 비닐을 감싸 붉은



물을 들이곤 했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봉선화 물이 남아 있다면 첫사랑을 이루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봉선화 물들이기 이외에도 풋보리를 몰래 베어 그슬려 밤이슬을 맞힌 다음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풋참밀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긴 다음 알맹이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먹기도 했다.

소만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찔레, 아카시아꽃 등의 꽃들이 피어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썸바귀, 썸갓 등 각종 나물을 해 먹는다. 특히 소만에는 죽순을 즐겨먹었다. 대나무로 크기 전 아주 짧은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죽순은 누런색이다. 신록의 푸르름이 절대한 여름에 누런 죽순이라니, 다소 어울리지 않지만 대나무로 크기 위해 모든 영양분을 먹고 누렇게 썩썩 자란다. 이 죽순을 잘라 먹으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

노년의 웰빙 (well-being)

법상 정사
수인사 주교

웰빙은 흔히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육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강건함보다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년은 심신을 혹사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웰빙의 시기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만으로는 웰빙이 될 수 없다. 정신과 인품이 무르익어가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봉이자 웰빙의 최적기다. 노년의 녹색지수는 무한대다. 노년의 삶은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며, 생각은 달관하듯 관대하다. 소탈한 식사가 천하의 맛이며, 세상을 온몸으로 감싼다. 노년의 삶은 자연과 하나다. 그래서 노년은 청춘보다, 꽃보다 푸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은 삭막하고 고독한 시기로 생각한다.

사실 젊음을 구가하던 때와 비교하면 노년의 외모는 형편없다. 그럼에도 말년을 앞에 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와 경륜으로 쌓아올린 덕이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주름살 속에 아름답게 풍겨나는 인자스러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쌓이며 승화되는 화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온 노인은 지혜가 풍부하고 마음이 인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대부분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마음이 좁은 노인들을 더 자주 만난다. 왜 그런가?

사랑과 용서, 자비와 보시의 삶에 인색했거나 은혜의 삶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이다. 노년은 용서와 배려하는 시기이다. 용서와 배려의 근간은 자비와 사랑이다. 사랑과 자비만이 인생을 구제하는 희망이다. 사랑과 용서, 자비와 보시로 충만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길 나선다
분주한 잔치집이다

종종걸음의 아낙의
걸음에도 초록이 뒤따르고

건물 앞
아지랑이 가득한
모퉁이에도 봄이다

바람이 없어도
꽃비 흐드러지게 쏟고

내 손 닿지 않아도
톡 톡 톡톡

봄이 아닌것이 없다
온통 초록의 부러움뿐이다



우리 가정은 안녕한가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사회(social)를 구성하였다. 사회 구성원이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사회복지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의 구성 단위는 가정이고, 가정은 가족이 구성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가정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 가족은 혈연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단단하게 뭉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효도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은 안녕한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뉴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는 존속 살인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사업에 실패한 가장이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어서 한 가족이 몰살되는 비극적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머지 않아 한국은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들으면서 한숨을 짓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밀려들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가정이 안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에는 조부모부터 부모 그리고 자손의 3대가 살고 있어야 서로 보살피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조부모는 요양원에 가고, 자식은 미혼 상태에서 집을 떠나 독립을 한다. 이렇게 3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 가족이란 연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조부모는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혼자가 되고, 부부는 이혼으로 각기 살고, 자녀들도 집을 나가는 순간 각각 원하는 장소로 거처를 정하기 때문에 혼자가 된 사람들이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속수 무책이다. 그래서 쓰러지면 병원에도 못가보고 혼자서 죽는 고독사가 발생한다. 고독사

본연의 자비 慈悲

하현주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는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노인들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 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물론 나라 그리고 지구에 사람이 없고 AI인간이 득실거릴 것이다. 인간은 AI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람이 사는 맛과 멋이 사라진 정말 끔찍한 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가족관을 실천해야 한다.

불교의 가족관은 자기 가족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다른 사람들도 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이다. 보현행이 바로 불교의 가족관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부처님을 공양하듯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최고의 인간애(人間愛) 발휘이다.

부처님도 일찍부터 출가하여 도를 깨치고 싶었지만 아들 라훌라가 태어난 후 ‘라훌라! 라훌라!’를 외치며 기뻐하신 후 바로 궁궐을 나와서 출가를 하셨다. 라훌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자유라는 의미이다. 아들이 태어나 종족 보존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인도 이런 라훌라 정신으로 가족을 만들고 불교적 가족애로 나의 가족과 타인의 가족을 지키면서 전인류가 가족이 된다면 전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티벳 불교의 카규파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교훈 중 ‘유사해서 착각하기 쉬운 것’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 ‘이기적인 행위를 이타적인 행위로 착각하지 말 것’과 ‘집착을 자비로 착각하지 말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로워지고자 한다면, 어떠한 동기에서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진짜 자비인지, 가짜 자비인지부터 구분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자비의 함양을 위한 불교와 심리학의 학제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필자는 자비와 유사하지만 진정한 자비가 아닌 유사자비(pseudo-compassion)의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다. 자비가 병리적 이타주의의 형태가 아닌, 진정하고 건강한 자비가 되려면, 자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짜 자비를 변별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애적 자비

다른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도움받는 이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도움을 주고 난 후의 뿌듯함과 ‘도움을 주는 착한 자기’ 이미지에 도취 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 듯 보인다.

게바우어(Gebauer) 등은 이러한 양상을 공적 자기에(communal narcissism)라는 용어로 개념화한 바 있다. 자신의 중요함과 가치를 확인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한 이타주의는 병리적 자기에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와 같은 사적 자기에에 비해, “나는 가장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다”라는 공적 자기에를 지닌 사람은 일견 이타적이고 자비로워 보일 수 있지만, 도움받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 결여되어 있으며, 타인을 도구로 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려 한다는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반동형성적 자비

프로이트(Freud)와 동시대의 초기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자비는 잔인함과 무자비한 본능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실제로 모든 자비가 반동형성인 것은 아니지만, 잔인하거나 인색한 자기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반대로 자비롭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이 드러날까봐 강박적



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과잉보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그 자신에게도 비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동기를 점검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슬픔에 압도된 자비

우리는 흔히 자비와 슬픔을 혼동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을 자비라 여긴다. 그러나, 『청정도론』에 따르면, 자비의 가까운 적은 슬픔이고, 먼 적은 잔인함이다. 고통받는 생명 앞에서 잔인함이 드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드문 일이기에 먼 적일 수 있지만, 슬픔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자비심을 가질 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에 가까운 적이 된다

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슬픔이 지나치게 되면 실제로 도움에 필요한 대처역량은 제한되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 자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또한, 상대의 고통을 보며 느끼는 슬픔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고통이 환기되면서 경험되는 전치된 자기연민인지는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

자기희생적 자비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타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또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패턴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도덕적 피학증(moral masochism)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성적 피학증과 달리 과도하게 윤리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고통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학적 성격을 기술한 바 있다.

이들은 고통으로 점철된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도와야만 하는 주변인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무시

한다. 동시에 고난을 견뎌내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자기희생을 반복하게 된다.

선한 줄만 알았던 자신의 마음에 이처럼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다. 모두가 완벽하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매 순간 진정한 자비여야만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자비의 실천을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오늘 내가 실천한 자비는 어떠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점검하며 자신의 의도를 인식해나가려는 노력은, 거울에 묻은 얼룩을 닦아 본연의 맑고 자비로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도덕적 사고와 통제적 사고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최근 인터넷을 보다 통제적 사고를 가진 부모에게서 일어난 끔찍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기사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어느 날 공원 쓰레기통에서 한 부부의 토막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얼마 전 제대한 이들의 둘째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대미문 존속 토막살인 사건에 모두가 경악하던 그때, 범인의 형은 “동생을 이해합니다”라고 반응해 충격을 더했다.

이후 공개된 둘째의 일기장에는 ‘밥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진 것’, ‘키가 작아 사회생활 못할 거라 한 것’ 등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받은 학대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 일기를 본 박지선 교수는 “엄마의 높은 기준에 아이를 맞추려고 한 것 같다”라며 “명문대 출신이지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엄마가 본인 못 해본 걸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아들은 서울의 ‘K대’에 다니는 명문대생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S대에 갔을 텐데, 부모가 이렇게 뒷바라지하는데 그걸 못하냐”라며 만족하지 못했다. 박지선 교수는 “이 부모는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통제 성향이 높았던 걸로 보인다”라며 “기본적으로 통제광들은 사람을 잘 안 믿고, 자식도 안 믿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완벽주의에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있는데, 이 부모는 둘 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스티븐 R. 코비(Steven R. Covey)는 ‘선택할 힘과 자유를 원칙에 따라 겸손하게 사용할 때 사람, 문화, 조직, 전체 사회가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를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도덕적 사고는 겸손, 친절, 배려, 수준 높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신뢰할 만한 영적, 감성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적 사고(controlled thinking)는 조직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사고방식으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직원이나 조직 구성원들을 수평관계에 있는 동료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구조의 아랫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속품이나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거나 주변 사람들에

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도덕적 사고가 상당히 뛰어나고 수준 높은 어휘력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사고보다는 통제적 사고방식이 더 먹히는 조직사회 속에서 지내다 보면 도덕적 사고의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다. 자연스럽게 권위에 의존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조직사회의 시발점인 가정내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자녀를 도덕적 사고로 대하느냐, 통제적 사고로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태도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주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준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 심한 징계를 가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엄마의 통제적 사고방식은 자녀를 주눅 들게 만들고, 심지어 남편까지도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든다.

부모의 도덕적 사고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경험한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자녀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며, 자아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는 자녀가 자기를 존중하는 존중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해 나갈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신로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 박사

사물은 만 가지나 있지만 몸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몸은 여러 기관이 있지만 마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외물에 휘둘리는 것은, 어진 이는 하지 않는 것이다.

夫物有萬品，莫重於身，身有百體，莫貴於心，勞心以役物，賢者之所不爲也。

- 신작(申錫, 1760~1828), <석천유고(石泉遺稿)> 3권 「자서전(自叙傳)」

위의 문장은 신작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쓴 「자서전(自叙傳)」의 말미이다. 신작은 조선 후기의 경학자로, 부친은 신대우(申大羽)이며 모친은 정제두(鄭齊斗)의 손녀로 강화학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늦은 나이에 부친의 권유로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하였지만, 부친상을 당한 이후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평생을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은거하기로 한 이후로는 한 해에 한 번도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맑고 편안하게 지내며 남들과 함부로 교류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이고, 몸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마음이라는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해서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기까

지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는 신작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로지 과거 시험만을 위해 살다가, 과거 급제가 되고 나서는 관직에 매몰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사람들이 생각했을 ‘후대(後代)’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15년 전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나는 보여진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현재, 이곳’에 엄연히 존재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은 뒤로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를 쓴다. 내가 가진 소유물을 보여주며, 그 소유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



어떠세요?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이는 마치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존재하지 않는 기사〉의 주인공들이 현실 세계로 나온 것만 같다. 존재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텅 빈 갑옷뿐인, 존재하지 않는 기사^{騎士}와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인,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가 그들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하고 병들게 한다면, 내 존재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술한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이고 그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내 존재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소설 미디어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이다.

한국고전번역원

“어떠세요?” 첫 수련 첫 시간에 들려온 일성^{一聲}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 첫 질문을 받은 지 아홉 해가 되었다. 이제는 그 질문의 함의를 이해하고 있다. 이 질문은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스스로에게, 시시때때로 던져야 하는 질문임을 알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 조사’라는 것을 했다.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아니면 무슨 직업을 원하는가 하는 조사였다. 인류사는 그렇게 무엇을 이루는 역사였다. 이루고 이루며 거듭 이루어 왔다. 그리하여 동굴 속에서 살던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소유를 이루어냈다. 그에 따른 만족감은 어떨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린다. 그런데 그 지점에 닿았다 하면 새로운 목표점이 생긴다. 아무리 달려도 소유를 향한 갈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독이다. 중독은 행복의 유사물들이 흔히 지니게 되는 부작용이다.

이제 인류는 달나라에 가는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소유하게 되었다. 지구를 몇 번이고 날릴 수 있는 원



폭도 있다.

2,600년 전, 태중에서부터 그 나라 최고의 지위를 약속받고 태어난 인도의 한 젊은이는 29세에 가진 것을 모두 아낌없이 버렸다. 그의 관심사는 소유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상태였다. 스스로에게 “어떠세요?”를 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마음이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본래 멸^滅의 대해탈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왕이 되어도 그 마음이 끝내 불안하다면, 반면 걸식을 해도 마음이 무한 평화로 넘친다면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분명했다.

첫 수련이 끝나고 스승께 삼배를 올렸다.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고 무한자가 되십시오.” 스승은 그렇게 축원해주었다. 그 축원의 말씀이 “어떠세요?”하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수련을 거듭 하면서였다.

“어떠세요?”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묻는다. 정신을 차린다. 내 안을 살피고 느껴본다. 거기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다.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무한자인 존재가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궁극의 행복과 평화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에서의 성취는 끝도 없이 쫓아야 하는 중독물이 아니라 웃음경 삼아 그냥 해나가는 즐거움이 된다.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습니다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흔히 우리들 일반 가정의 거실에서 눈이 자주 가기 쉬운 곳의 한쪽에 많이 걸어두는 액자에서 종종 보아온 ‘향원익청^{香遠益清}’이란 말을 많이 봅니다. 이 말은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香遠益清}’라는 말이지요. 중국 성리학의 틀을 만들고 기초를 닦은 유학자 주돈이^{周敦頤}(1017~1073)의 유명한 사설 ‘애련설^{愛蓮說}’에 나오는 말로 ‘군자의 아름다운 마음은 연꽃의 향기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꽃향기는 역풍을 만나면 쉽게 그 향기가 사라지지만 사람들의 인격의 향기는 역풍을 만나도 이를 이겨내고 오히려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법구경』의 말씀과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로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인격의 향기를 발하는 데는 네 가지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강인한 용기로, 또 때로는 부담 없는 격려와 위안을 아낌없이 전해

주고 포근히 감싸주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검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검소하다는 것은 근검·절약만을 의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인격에 준해 삼가되 마음은 활달하여 아무것에도 구애됨이 없는 소신과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에도 어떠한 사심이 없고 공사를 분명히 하는 감성의 검소한 마음에서 우리는 존경의 예를 포함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버려야 할 편견과 아집은 지나침과 감정적 충돌로 인해 그 결과물이 결국은 불화를 낳게 되고 그 불화는 또 서로 간에 인격을 손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급하게 남 앞에 나서서 허세를 부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척을 많이 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그리 잘나지 못했는데도 잘난 척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려니 그리고 뜻이 있으면 이루려니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낮추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위상도 저절로 높아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



심과 탐심을 제어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느긋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깨우침의 말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도 결코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과 과유불급의 지나침이 없는 속에서 진정한 인격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니 만큼 우리는 성급함 속에서 결코 허세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귄수록 새로운 면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뜻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서 기쁨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기

보다는 속내를 보게 됨으로써 오히려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보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있고 노련미와 함께 신선미를 풍기게 하는 사람이 대인^{夫人}의 자세를 갖춘 품모가 아닐까요?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인격의 향기가 그윽함을 담아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지가 바로 향원익청^{香遠益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화안보시^{和顏報施}: 얼굴색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남에게 보시한다’로 언제나 부드럽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세상을 꿈꿔야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소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자신을 힘들게 하여도 쉽게 성내지 않고 그렇다고 쉽게 깔깔 대지도 않는 은은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진정 매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기가 자신의 미숙함도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바쁘고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모두가 짬짬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향원익청^{香遠益清}의 마음으로 세상에 재세이화^{在世理化}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석동령 작사, 작곡

묘원화 전수

벽룡사

잠 못 드는 사람에게

석동령 작사 / 작곡

mp

1. 헤 메 이 는 사 람 에 - 게 밤 - 은 길 어 라
 2. 머 무 르 는 사 람 에 - 게 밤 - 은 길 어 라
 3. 잠 못 드 는 사 람 에 - 게 밤 - 은 길 어 라

5 *mf*

빛 이 없 는 사 람 에 - 게 길 은 멀 어 - 라
 지 혜 없 는 사 람 에 - 게 길 은 멀 어 - 라
 피 - 곤 한 사 람 에 - 게 길 은 멀 어 - 라

9 *f* *p*

잘 못 된 생 각 에 미 로 에 서 헤 매 이 - 고
 지 혜 로 자 신 을 돌 아 보 는 사 람 들 - 은
 바 른 법 모 르 는 어 리 석 은 사 람 에 - 게

13 *f* *p*

진 리 에 가 까 이 갈 - 수 없 어 라
 거 료 한 법 에 서 기 뵈 을 맛 보 네
 생 사 의 밤 길 은 길 로 또 한 멀 - 뿐

17 *f*

길 고 또 한 멀 - 뿐

Copyright © 2015. 8. 24. 묘원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설법에 곡을 붙인 노래를 찾아 보았다. 그중에서 <잠 못 드는 사람에게>는 범구경 제5장 우암품^佛品에 석동령 씨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손봤다.

경건함이 배어 있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범구경이 간직한 지혜가 절로 몸에 스며드는 청아한 느낌을 받는다. 일부러 외우려 해도 어렵던 경전이 노래로는 술술 불러진다. 그래서 경전이 암송으로 구전되었나 보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는 엘엠비 싱어즈(LMB Singers)의 3집 앨범 '마음의 향기(2009)'의 타이틀 곡이다. 엘엠비 싱어즈는 1999년 창단된 전문 찬불성악중창단이다. 대표 황영선 씨가 대학 동기 김미영 씨를 섭외했고, 자신이 지휘자로 활동하는 사찰 합창단 반주자 석동령 씨를 불러들였다. 7명의 남녀 혼성 중창단에서 25년간 50여명의 단원이 바뀌는 사이 이 세 명은 엘엠비 싱어즈의 역사의 증인으로 남았다.

이들이 입을 모아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기가 많았던 사찰 합창단이 줄어드는 것이다. 합창단은 찬불가를 보급하면서 소비하는 이들인데 합창단이 사라지다 보니 불교음악의 저변을 받칠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엘엠비 싱어즈는 전법의 방편으로 군부대에서 음악 법회를 열어 군포교에 힘쓰고 있다.

우리도 불법을 전하고, 찬불가를 보급하는데 더 노력을 보태야 한다.

밀교와 현교의 다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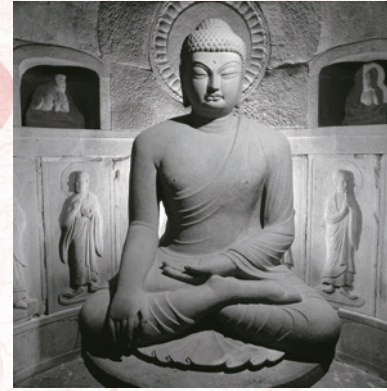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불교^{佛敎}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며, 그것은 ‘부처님께서 일체존재의 진리를 직접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무명번뇌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깊이 헤아리고 닦아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처럼 무작정 신에 매달려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닦는 수행^{修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로 나누어 집니다. 다른점은 첫째, 현로불교^{顯露佛敎}를 줄인 현교는 ‘석가모니불을 교주^{教主}로 하는 응화불의 가르침이고, 비밀불교^{秘密佛敎}의 줄인 말인 밀교는 ‘심오하고 신비한 대일여래 즉,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는 법신불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응화불 석존이 근기에 따라 설하신 방편의교를 현교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신불이신 대일여래가 근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방편을 쓰지 않으며 여래자증의 경지를 있는 그



석굴암 본존불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대로 개설하신 것이 밀교인 것입니다

셋째, 성불의 지속인 것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성불에 이를 수 있나 하는 것인데 밀교에서는 삼밀가지의 수행을 통하여 여래의 진실의를 깨달으면 지금의 이 몸 이대로도 즉신성불이 가능하다고 설하고 있지만, 현교에서는 삼대무수겁 아승지겁을 거쳐 거의 무한정한 시간을 통한 수행을 거쳐야 겨우 무상보리를 증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위 삼겁성불설로서 현교의 성불관입니다.

밀교는 기원 후 5~6세기 인도 대승불교 이후에 등장했으며, 신라시대 때 시작된 한국밀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흥왕했습니다. 밀교는 입으로 하는 진언, 손으로 맺는 결인, 뜻으로 행하는 관법의 수행인 신·구·의 삼밀수행^{三密修行}의 의궤로 무상정등각을 증득하려 합니다.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은 현교이며, 총지종, 진각종, 진언종은 밀교라고 보면 됩니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팔만대장경 The Eighty Thousand Tripitaka Buddhist Scriptures



보현보살 현화도 Incarnation of Bodhisattva Samantabhadra

PART 3. 우리의 민속 문화

I 학등

II 보현보살 현화도

III 도심 속의 미륵불

IV 팔만대장경

V 오방신장

VI 관음보살

VII 금강역사

VIII 자장율사와 황룡사

IX 이차돈의 순교

X 행사 속 전통등

보현보살 현화도

보현보살은 중생이익을 원으로 삼고 행하며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돕는다. 사찰에서는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보현보살 현화도는 보현보살이 현실세계에 나타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제작 당시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아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도심 속의 미륵불 Maitreya Buddha in Cityscape



오방신장 The Divine Guardians of Five Directions

05. 이유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 친구와 부딪혀 친구가 넘어진다. 엄마가 아이에게 “뛰어 다니면 안 돼. 친구와 부딪혀서 친구가 넘어졌잖아.”라고 이야기한다. 아이는 엄마의 눈을 보지 않고 이야기도 듣지 않으며, 몸부림을 치며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 원인

- 1) 아이 내면에 스트레스나 불안,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일 경우
- 2) 평상 시 아이가 뛰는 것을 제재 받았을 경우 차후 뛰어다니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뛰어다니는 경우
- 3) 아이가 기질적으로 신체 에너지가 많고 움직임이 많은 특성을 가진 경우

● 지도방법

- 1) 아이 내면의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준다.
- 2)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 3)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시보다는 다양한 질문을 한다.

4)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준다.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뛰어다니는 행동은 주의를 끌고 싶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아이의 행동이 단순히 주의를 끌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해소를 위한 행동인지 변별하는 것이 부모로서 중요하다. 아이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자.

지난 호 정답

①㉓ 옴	마	니	㉑ 반	메	㉒ 흙		②㉔ 참	교	㉕ 육
니			야		볼		선		합
버		③ 효	심		⑥ 트	㉖ 집			상
④ 스	㉗ 시		⑤ 경	㉘ 청		⑦ 중	심	지	
	나			결		포			
⑧ 이	브	닝				⑨ 화	㉙ 장	품	
	로		㉚ 요		㉛ 밀		학		
㉜ 공		⑩ 궁	리		짚		⑪ 금	수	㉝ 저
휴			⑫ 조	삼	모	사			수
⑬ 일	품	요	리		자		⑭ 막	바	지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②㉑		㉑
		③				㉑			
④	㉑		⑤	㉑				㉑	
⑥						⑦	㉑		
			㉑		㉑				
㉑		⑧					⑨		㉑
			⑩						
⑪							⑫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음력 4월 8일로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②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 ③ '나무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을 호명하며 외우는 일
- ④ 강이나 바다, 호수 등의 물의 깊이
- ⑤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함
- ⑥ 음식맛을 맞추는 데 쓰는 재료
- ⑦ 무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m의 무인도, 북파목적 비밀의 000부대
- ⑧ 용의 턱밑에 거슬러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한다는 전설, 임금의 분노
- ⑨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고려 가요 제목
- ⑩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을 뜻하는 말로 불교에서 유래
- ⑪ 매년 5월 8일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제정된 날
- ⑫ 산수의 형세나 방위 등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해서 푸는 전통적인 이론

세로 열쇠

- ㉓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잘 따름, 부부 사이 화합하는 도리를 비유
- ㉒ 자나깨나 잊지 못함
- ㉑ 비, 구름, 바람, 기온 등의 변화에 따른 대기의 상태
- ㉑ 볶아서 깨소금을 만들거나 기름을 짜서 쓰는 양념
- ㉑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는 종단 대표 상징문양
- ㉑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감퇴된 상태
- ㉑ 상대방을 서로 애뜻하게 사랑하여 사귀
- ㉑ 힘이 없어서 자꾸 흐느적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㉑ 바람, 여자, 돌이 많다고 하여 삼다도
- ㉑ 맛있는 음식을 가려 먹는 특별한 기호를 가진 사람
- ㉑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 ㉑ '용 머리에 뱀 꼬리' 시작은 크지만 흐지부지 끝남을 꼬집는 말
큰 언덕처럼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서해안에서 제일 큰 섬
- ㉑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
- ㉑ 연극, 음악, 방송 등 실제 공연 전에 하는 연습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남 혜 법 공 법 우 안한수
우 인 유선호 유지호 이수영 이인성 인지심
자선화 정건호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랑 장송채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병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법화경』에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절하는 수행자 이야기가 있다. 만나는 사람이 부자이건 거지이건, 할머니건 말썽꾸러기 소년이건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며 늘 공손하게 절을 했다.

사람들은 이 수행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절하는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건방지게 부처가 되느니 마느니 하느냐, 부처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떠돌고 다니냐.”면서 때리기도 했다. 늘 비웃음과 놀림의 대상이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익숙해져 의례 듣는 얘기려니 생각하게 되었다. 차츰 그의 말이 떠오르면 자기를 돌아보았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부처님을 그리며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 함부로 남을 놀리고 욕하지 않게 되었고 진심으로 이 수행자를 존경하게 되었다.

선거철을 맞아 유난히도 절하는 사람이 많았던 4월이었다. 절을 해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낙선도 되었다. 이왕지사 절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행자처럼 절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전에 큰 서원 세우고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절하는 수행자처럼.

발행일 총기 53(2024)년 5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5월호



영겁의 시간 앞에서는 어떠한 기대와 욕망도 부질없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겁을 지속하고도 남는 것은 오직 자성自性뿐이다.
이것을 불성佛性이라고도 한다.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